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

The Family Strengths and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강사 이 선 정*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Lee, Seon-Jeong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traits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hood, family strengths and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The subjects were the 409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ed between 2007. 6. 20 and 2007. 6. 26.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Cronbach's α , T-test, Chi-Square, ANOVA, and Duncan's test using SPSS/PC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When asked if you married, most students replied "yes", and childbirth plan replied "yes". The 78.2 percent of schoolgirls and 74.6 percent of schoolboys responded that responsibility of bringing up children was man and wife. The most important Parental meaning was 'fosterer'. The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s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3.00). Over all, the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were high.
2.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ost important Parental meaning, responsibility of bringing up children, intimacy with parent, dual-income family, and family strengths.

Key Words : family strengths, future parent's rol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이며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성장, 발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정 내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의 인간적 성장을 위한 여러 측면의 부모역할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만혼 현상,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소자녀화는 부모의 역할 수행의 양은 줄여주었으나 오히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유기, 청소년 비행 등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이란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특징적 행동의 양식으로(임연신, 현은강, 2002), 자녀를 보살피며 성장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부모역할의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이자 생계유지자로서의 도구적 기능을, 어머니는 정서적 욕구

* Corresponding author: Seon Jeong Lee
Tel: 062) 530-2525, Fax: 062) 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

를 충족시키는 표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으나(Parsons & Bales, 1955, 나인경, 2005, 재인용) 최근에는 부부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맡아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두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이은화, 김영옥, 1999). 이는 가족의 크기가 점점 축소되고 여성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숙재(1983)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자녀 양육기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나 여전히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출산 및 양육의 책임자,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적절한 훈육자, 교육자, 동일시 모델의 역할제공자, 상담자 및 친구의 역할이라고 하였고, 이연섭과 강문희(1998)는 바람직한 부모는 교사, 모델, 의논 상대자, 성역할 평등개념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역할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나 양육 기법에 대한 정답 또한 없기 때문에 대개 부모들은 윗세대들의 양육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릇된 원리와 방법에 근거해 자녀를 지도하게 된다.

부모역할의 수행은 실질적으로 임신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화는 임신과 자녀 출산보다 훨씬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시작된다(유계숙, 정현숙, 2002). 이원영(1985)도 결혼 전이나 출산 전에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심리적 준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하므로 약혼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가 되기 이전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상징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지며, 이때 형성된 개념화는 실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하기 위한 부모됨의 이해와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화는 부모가 되면서 비롯되기 보다는 그 이전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재정립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제한된 환경과 경험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부모역할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장차 성인으로서 아동기의 발달적, 사회적 의미와 이에 관련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나인경, 2005).

개인의 가치관은 일생동안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미래의 가정생활이나 목표 설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의 부모됨과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하는 최초의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내의 인적 환경은 개인의 행동은 물론 가치관이나 성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는 가족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가정폭력, 만성불안과 스트레스, 그릇된 가족의식이나 가치관이 전수되어 바람직한 사회인을 육성하지 못하므로(유영주, 2004)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가족 내 환경은 청소년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가족 연구의 선구자인 Otto(1962)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신념, 종교,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및 목적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늘 행복하고, 함께 일하며 즐기고, 어떤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주고 특별한 휴식 활동을 함께 하고, 교육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은주, 1996, 재인용).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비롯된 우리나라의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유영주(1991)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은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통하여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가치를 강화하고 건강한 인격발달과 다양한 가족원이 만족하는 사회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 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에(유영주, 2004)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가족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가족은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을 묻는 연구(김영희, 한경혜, 2004; 이경희, 2003; 차승은, 2008), 부모역할 만족도(김정희, 문혁준, 2006; 박지현, 2008; 임현신, 현은강, 2002), 부모역할 자신감(김영희 외, 2007), 부모역할 갈등(김해신, 김경신, 2003; 옥경희, 1999), 부모역할 스트레스(남현아, 2003)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경우도 부모전이기에 있거나 부모기에 있는 대상을 주로 연구해왔다(박수연, 2005;

정옥분 외,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실태에 그치고 있으며(나인경, 2005)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 정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정은숙, 2002)에서 부모역할 인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조사되었거나 관련이 될 것으로 예상된 부모됨 관련 변인(부모의 상징적 의미, 자녀양육 책임)과 가족 관계 변인(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남녀 중학생의 부모됨 관련 변인, 가족건강성,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중학생의 부모됨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인에 따라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3)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따라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450명의 남, 녀 중학생이다. 자료 수집은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0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03(49.6)	학년	2학년	177(43.3)
	여	206(50.4)		3학년	232(56.7)
종교	없음	214(52.8)	생활수준	상	23(5.6)
	기독교	107(26.4)		중상	120(29.3)
	천주교	31(7.7)		중	230(56.2)
	불교	49(12.1)		중하	33(8.1)
	기타	4(1.0)		하	3(.7)
부학력	중졸이하	23(5.8)	모학력	중졸이하	13(3.3)
	고졸	208(52.3)		고졸	294(73.9)
	대졸	151(37.9)		대졸	82(20.6)
	대학원졸	16(4.0)		대학원졸	9(2.3)
부직업	전문직	15(3.8)	모직업	전문직	19(4.8)
	관리직	162(41.3)		관리직	68(17.1)
	서비스/판매직	110(28.0)		서비스/판매직	115(28.9)
	기능직	81(20.7)		기능직	38(9.5)
	농/어/축산업	6(.5)		농/어/축산업	1(.3)
	단순노무직	14(3.6)		단순노무직	7(1.8)
	무직	0(.0)		가사	147(36.8)
	기타	4(1.0)		기타	4(1.0)
출생순위	장자	200(48.9)	형제수	없음	15(3.7)
	중간	61(14.9)		1명	260(63.6)
	막내	133(32.5)		2명	114(27.9)
	외동아	15(3.7)		3명이상	20(4.8)
가족형태	핵가족	359(87.8)			
	확대가족	50(12.2)			

2. 측정도구

1) 부모됨 관련 변인

부모됨 관련 변인은 정은숙(2002)의 연구와 최양미와 이태섭(1999)의 연구를 토대로 결혼 여부, 자녀출산 여부, 부모의 상징적 의미, 자녀양육 책임에 관한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 부모역할 인식과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상징적 의미와 자녀양육 책임의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2) 가족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인은 미래 부모역할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모와의 친밀도와 부모의 맞벌이 유무로 구성하였다. 부모와의 친밀도는 서로간의 친밀도를 묻는 것으로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맞벌이 유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을 토대로 홀벌이와 맞벌이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토대로 27문항을 구성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이었다.

4) 미래 부모역할 인식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각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으로 정은숙(2002)의 연구를 토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대화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등 14문항을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별로 미래 부모역할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4.0(kr)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남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됨 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남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과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됨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인,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분류분석(DMR-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됨 관련 변인, 가족건강성,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

1) 부모됨 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남녀 중학생의 부모됨 관련된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였고,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출산 여부에 대해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였다.

부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남녀 학생 모두 부모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남학생은 자녀를 낳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여학생은 보호 및 양육자로서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부모 부양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남녀 학생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가족건강성의 일반적인 경향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남녀 모두 중간값(3.00)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남녀 학생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표 2> 부모됨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남	여	전체	N(%)	x ²
결혼 여부 (n=409)	하겠다	159(78.3)	165(80.1)	324(79.2)		3.72
	하지 않겠다	9(4.4)	16(7.8)	25(6.1)		
	잘모르겠다	35(17.2)	25(12.1)	60(14.7)		
자녀출산 여부 (n=407)	갖겠다	159(79.1)	170(82.5)	329(80.8)		1.14
	갖지 않겠다	6(3.0)	7(3.4)	13(3.2)		
	잘모르겠다	36(17.9)	29(14.1)	65(16.0)		
부모의 상징적 의미 (n=408)	권위의 상징	12(5.9)	7(3.4)	19(4.7)		14.34*
	인생의 모델	24(11.9)	27(13.1)	51(12.5)		
	날아주신 분	60(29.7)	56(27.2)	116(28.4)		
	부모 부양자 (내가 모셔야 할 대상)	49(24.3)	28(13.6)	77(18.9)		
	자녀의 절대적 후원자	17(8.4)	22(10.7)	39(9.6)		
자녀양육 책임 (n=407)	보호 및 양육자	40(19.8)	66(32.0)	106(26.0)		7.51
	어머니	18(9.0)	23(11.2)	41(10.1)		
	아버지	17(8.5)	5(2.4)	22(5.4)		
	부부공동	150(74.6)	161(78.2)	311(76.4)		
	가족구성원 중 아무나	16(8.0)	17(8.3)	33(8.1)		

*p< .05

<표 3>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변인	남	여	전체	t	M(SD)
가족건강성	3.31(.71)	3.26(.75)	3.19(.74)	.87	

3)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일반적 경향

미래에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

았다. 부모역할 인식 중 ‘자녀의 대화 상대자’,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변인은 남녀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들 역할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표 4>.

<표 4>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일반적 경향

변인	남	여	전체	t	M(SD)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4.01(.90)	4.14(.91)	4.08(.91)	-1.46	
자녀의 대화상대자	4.03(.93)	4.31(.81)	4.17(.88)	-3.26**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4.04(.87)	4.19(.85)	4.12(.86)	-1.70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3.60(.97)	3.62(1.07)	3.61(1.02)	- .18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86(.92)	3.75(.96)	3.80(.94)	1.24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3.91(.92)	3.84(.94)	3.88(.93)	.73	
자녀의 사회성과 인자발달을 도와주기	4.09(.84)	3.95(.86)	4.02(.85)	1.76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09(.97)	4.39(.75)	4.24(.88)	-3.50***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17(.88)	4.40(.83)	4.29(.86)	-2.72**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3.92(.91)	4.10(.85)	4.01(.89)	-2.08*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3.76(.93)	3.72(.91)	3.74(.92)	.50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3.67(1.02)	3.72(1.02)	3.70(1.02)	- .43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41(1.07)	3.28(1.02)	3.34(1.04)	1.23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3.96(.93)	3.94(.89)	3.95(.91)	.15	

* p< .05, ** p< .01, *** p< .001

2. 부모됨 관련 변인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1) 부모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부모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표 5>와 같이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역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로서의 부모역할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2) 자녀 양육책임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자녀 양육책임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표 6>과 같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자녀의 대화상대자',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책임이 부부공동에게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갖추기' 역할을 높게 인식

하였고, 아버지에게 양육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자녀의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양육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역할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가족원 중 누구나 양육책임을 맡아도 된다고 응답한 집단이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3. 가족 관련 변인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1)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표 7>과 같다.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자녀의 대화상대자',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역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대화상대자',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이라는 부모 역할을 부모와 친밀하지 않은 집단이 더 낮게 인식하였

<표 5> 부모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

M(SD)

변인	부모의 상징적 의미						F
	1	2	3	4	5	6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3.89(1.41)	4.10(.73)	3.99(.93)	4.05(1.01)	4.21(.80)	4.16(.81)	.71
자녀의 대화상대자	3.95(1.35)	4.27(.72)	4.01(.90)	4.21(.95)	4.36(.78)	4.25(.80)	1.71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3.68(1.25)	4.14(.80)	4.10(.87)	4.14(.87)	4.21(.80)	4.14(.82)	1.08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2.95(.91) ^a	3.94(.88) ^b	3.59(1.05) ^b	3.63(1.06) ^b	3.51(1.02) ^b	3.60(1.00) ^b	2.82*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58(1.02)	3.73(.94)	3.78(.95)	3.86(.94)	3.95(.79)	3.82(.90)	.55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3.79(.92)	4.04(.87)	3.81(.93)	3.90(1.00)	3.92(.96)	3.87(.91)	.49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4.21(1.03)	4.02(.76)	3.84(.90)	4.09(.86)	4.31(.69)	4.02(.82)	2.21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16(1.17)	4.22(.83)	4.13(.91)	4.23(.83)	4.38(.88)	4.36(.81)	1.01
자녀의 학습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47(.91)	4.24(.89)	4.28(.90)	4.17(.87)	4.41(.85)	4.34(.82)	.74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3.74(1.05)	4.08(.85)	4.02(.89)	4.01(.83)	4.00(.83)	4.01(.84)	.42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3.74(.99)	3.94(.81)	3.80(.87)	3.68(1.06)	3.85(.84)	3.58(.91)	1.39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4.05(.97)	3.82(.97)	3.71(1.08)	3.64(1.03)	3.62(.78)	3.63(1.05)	.81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42(1.12)	3.63(.94)	3.37(1.00)	3.34(1.21)	3.26(.94)	3.20(1.03)	1.26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4.26(1.05)	3.84(1.01)	3.91(.91)	3.90(.90)	3.89(.89)	4.06(.85)	1.05

· 부모의 상징적 의미 : 1-권위의 상징, 2-인생의 모델, 3-날아주신 분, 4-부모 부양자, 5-자녀의 절대적 후원자, 6-보호 및 양육자

* p < .05

<표 6> 자녀 양육책임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

M(SD)

변인	자녀양육책임				F
	1	2	3	4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3.78(.96) ^{ab}	3.68(1.17) ^a	4.14(.87) ^b	4.09(.91) ^{ab}	3.50*
자녀의 대화상대자	3.90(1.09) ^{ab}	3.64(1.09) ^a	4.23(.81) ^b	4.30(.98) ^b	4.80**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3.95(1.02) ^{ab}	3.59(1.01) ^a	4.17(.81) ^b	4.21(.93) ^b	3.83*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3.35(1.05)	3.27(1.03)	3.66(1.00)	3.70(1.16)	2.00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59(1.14)	3.59(.96)	3.85(.88)	3.85(1.15)	1.35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3.66(1.07) ^a	3.55(1.06) ^a	3.91(.90) ^{ab}	4.15(.91) ^b	2.79*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3.80(.93)	3.86(.99)	4.06(.81)	4.03(.95)	1.42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15(1.01) ^a	3.77(1.15) ^{ab}	4.29(.82) ^b	4.30(.92) ^b	2.65*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10(1.04)	4.05(1.00)	4.34(.83)	4.27(.84)	1.60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3.90(.94)	3.73(1.12)	4.05(.86)	3.97(.88)	1.20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3.54(1.00)	3.55(1.14)	3.78(.89)	3.73(.91)	1.25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3.49(1.23)	3.32(1.13)	3.75(.97)	3.76(1.06)	1.91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44(1.00)	3.41(1.10)	3.32(1.06)	3.36(.99)	.18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4.05(.97)	3.91(.92)	3.94(.90)	3.97(.95)	.19

· 자녀양육책임 : 1-어머니, 2-아버지, 3-부부공동, 4-가족원 중 누구냐

* p< .01, ** p< .01

<표 7>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

M(SD)

변인	부모와의 친밀도			F
	친밀함	보통	친밀하지 않음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4.15(.83)	3.91(.97)	3.86(1.46)	3.23
자녀의 대화상대자	4.27(.79) ^b	3.99(.94) ^b	3.57(1.40) ^a	9.16***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 갖추기	4.15(.80)	4.03(.94)	4.10(1.26)	.64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3.67(.97)	3.46(1.01)	3.38(1.36)	2.11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85(.91)	3.63(.94)	4.00(1.18)	2.38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3.48(.87) ^b	3.71(.94) ^b	3.29(1.31) ^a	7.80***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4.07(.81)	3.85(.92)	4.05(1.02)	2.42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38(.76) ^b	3.91(.97) ^a	3.86(1.35) ^a	13.57***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36(.78)	4.13(1.05)	4.05(.87)	3.50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4.10(.83) ^b	3.82(.92) ^{ab}	3.57(1.25) ^a	6.39**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3.80(.89)	3.59(.94)	3.67(1.16)	1.89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3.77(.95) ^b	3.56(1.12) ^{ab}	3.24(1.02) ^a	3.94*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38(1.02)	3.34(1.02)	2.95(1.40)	1.62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3.95(.87)	3.96(.93)	3.86(1.32)	.11

* p< .05, ** p< .01, *** p< .01

고, 부모와 친밀한 집단은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역할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2)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표 8>과 같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낮게 인식하였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표 8>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

M(SD)

변인	맞벌이 유무		
	홀벌이	맞벌이	t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4.21(.89)	4.00(.90)	2.15*
자녀의 대화상대자	4.21(.92)	4.14(.87)	.74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4.20(.94)	4.09(.81)	1.25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3.59(1.11)	3.62(.96)	-.26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85(.95)	3.78(.94)	.68
부모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3.85(.93)	3.89(.91)	-.42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4.02(.88)	4.04(.81)	-.19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24(.90)	4.24(.82)	.02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28(.87)	4.27(.84)	.11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3.88(.87)	4.09(.86)	-2.33*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3.68(.94)	3.79(.91)	-1.13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3.64(1.03)	3.76(1.00)	-1.15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39(1.04)	3.33(1.03)	.53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3.94(.93)	3.97(.88)	-.35

* p< .05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역할을 높게 인식하였다.

4.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은 <표 9>와 같이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역할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은 집단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자녀의 대화상대자',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자

<표 9>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역할 인식

M(SD)

변인	가족건강성			
	높은집단	중간집단	낮은집단	F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4.40(.60) ^c	4.08(.77) ^b	3.73(1.17) ^a	16.71***
자녀의 대화상대자	4.48(.69) ^c	4.17(.77) ^b	3.85(1.11) ^a	14.99***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4.36(.68) ^b	4.06(.80) ^a	3.96(1.07) ^a	6.75***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3.85(.91) ^b	3.55(.95) ^a	3.45(1.19) ^a	4.96**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3.95(.88)	3.78(.89)	3.70(1.10)	2.12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4.22(.83) ^c	3.85(.80) ^b	3.56(1.11) ^a	15.01***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4.31(.75) ^b	3.92(.76) ^a	3.87(1.01) ^a	10.13***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4.63(.68) ^b	4.16(.80) ^a	3.98(1.04) ^a	18.01***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4.47(.77) ^b	4.29(.78) ^{ab}	4.09(1.05) ^a	5.54**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4.33(.73) ^b	3.93(.82) ^b	3.80(1.04) ^a	12.03***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4.05(.88) ^b	3.64(.80) ^b	3.58(1.06) ^a	9.79***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3.95(.96) ^c	3.70(.92) ^b	3.44(1.16) ^a	7.32***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3.62(.99) ^b	3.39(.92) ^b	2.98(1.20) ^a	11.30***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4.20(.81) ^b	3.80(.88) ^a	3.93(1.01) ^a	6.93***

높은집단>M+1SD, M-1SD≤중간집단≤M+1SD, 낮은집단<M-1SD

** p< .01, *** p< .001

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가정의 경계를 책임지기' 역할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낮은 집단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역할을 낮게 인식하여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 정도,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미래의 부모역할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관련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를 차지하였고, 자녀의 출산 여부에 대해서는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0.1%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미경(2004), 김은주(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에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이 15.8%로 나타난 것과 자녀 출산에 대해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나타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결혼과 자녀출산 계획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여학생 각각 14%와 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남학생은 자녀를 낳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여학생은 보호 및 양육자로서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학생 모두 부모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대의 변화된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주(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의미로 인생의 모델이자 지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권위의 상징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남녀 학생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중간값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미래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역할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자녀의 대화상대자',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역할의 점수가 남학생 보다 높았다. 특히 남녀 중학생 모두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는 역할'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집안을 유지하고 지키는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학업 및 직업 선택의 조력자 역할을 자녀들도 자신의 미래 부모역할로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모됨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역할은 자녀양육 책임이 부부공동에게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높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낮았다. '자녀의 대화상대자' 역할은 자녀양육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집단이 낮았고, 부모자녀간의 친밀도가 낮은 집단이 낮게 인식하였다.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역할은 자녀양육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낮게 인식하였고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에 대한 역할 인식은 부모의 상징적 의미로 권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낮았다.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역할은 자녀양육책임이 가족원 중 누구에게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높았고, 부모자녀간에 친밀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낮았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역할에 대해서는 자녀양육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낮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집단이 높게 인식하였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역할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높게 인식하였고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역할은 부모와 친밀한 경우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높은 집단이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 '자녀의 대화상대자',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추기',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델', '부모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기',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가정의 경계를 책임지기' 역할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낮

은 집단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기', '시사문제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갖기', '집안의 가풍이나 가훈을 정하고 지키기' 역할을 낮게 인식하여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 인식에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출산 여부에 대한 인식은 만혼, 저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와 달리 상당히 높아 긍정적이었다. 이는 중학생 시기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청소년의 이해와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가족관과 결혼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부모 부양자(내가 모셔야 할 대상)에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아 중학생들이 노년기 부모 부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 중 사회보장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남학생이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남녀의 역할이 아닌 자녀의 의무로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경료초친사상을 공고히 하고 사회에서도 부모 부양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현대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상징적 의미로 '자녀 보호 및 양육'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여기는 부모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적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매스컴에서도 부모상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친밀도나 맞벌이 유무와 같은 가족 관련 변인은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것과 연관되었다. 부모자녀간의 친밀감 정도에 따라 부모역할 중 자녀의 대화상대자나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기와 같은 자녀와의 대면적 관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는 특정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인식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상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뜻한 가정분위기 조성의 역할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 낮았지만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자녀의 미래 부모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의 직업은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가 맞벌이인 가정의 청소년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지워주는 부모역할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 인식에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건강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족간 존중과 애정을 보이고, 역할을 공유하고 문제해결력을 지니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간 유대가 좋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족 속에서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부모됨과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 강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가족 간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의례를 의식적으로 창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미래에 이들의 건강한 가족 구성과 가족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예방적 중재로 '부모됨 준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적 제한점과 양적연구의 제한점을 지니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표집과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역할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며 부모-자녀간의 부모역할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가족건강성, 미래 부모역할 인식

참 고 문 헌

- 권미경 (2004)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13-422.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

- 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영희, 한경혜 (2004)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부모역할 보상과 이혼한 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201-217.
- 김은주 (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김정희, 문혁준 (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6), 73-84.
- 김해신, 김경신 (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 나인경 (2005) 고등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부모준비교육의 요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아 (2003) 초등학교 부모의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나미, 윤혜미 (2006)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향 및 부모의 관리 감독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거절,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5, 39-69.
- 박선영 (2009)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일탈또래와의 연합, 자아개념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연(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8)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영아의 정서지능 관계 연구: 만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경희 (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 4(1), 45-66.
- 유계숙,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영주 (199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이경희 (2003) 이혼한 한부모가 지각한 부모역할 보상과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83) 여대생의 자녀관, 자녀양육 지식 및 부모역할 이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6, 39-57.
- 이연섭, 강문희 (1998)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이원영 (1985)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은화, 김영옥 (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임연신, 현온강 (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정은숙 (2002)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승은 (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 최양미, 이태섭 (1999)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인문과학연구*, 7(1), 232-252.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초, 중, 고 학생 16.8%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27.0% '자녀 꼭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동향. (<http://www.kihasa.re.kr/html/jsp/>)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Meece, D. W. (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Quigley, D. D., Jaycox, L. H., McCaffrey, D. F., & Marshall, G. N. (2006) Peer and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anger expression and the acceptance of gross-gender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21(5), 597-611.

(2009. 1. 20 접수; 2009. 4. 9 채택)